미리암 칸

1949년 스위스 바젤 태생
스위스 베르겔(GR)에서 생활 및 작업

전기

업데이트: 2022년 1월
2014 Oberrheinischer 미술상, 오펜부르크 시와 문화예술 지원 그룹, 독일
2013 Kunstkredit 바젤시에서 바젤 미술상 수상, 쿤스트할레, 바젤, 스위스
2009 세인트 모리츠 아트 마스터상 수상, 스위스
2005 그랑프리 오펜하임, 스위스 연방 문화청, 스위스
2001 스위스 그래픽 아트 재단 수상, 스위스
1998 Käthe Kollwitz 상 수상, 베를린, 독일
1997 Ströher상 수상, 프랑크푸르트/M, 독일
1996 Landis+Gyr 장학금, 런던, 영국
1988 Hypobank Geneva 수상, 스위스
1985 DAAD 장학금, 베를린, 독일
1984 바덴뷔르템베르크상 수상, 독일
1968-73 그래픽 클래스 비즈니스 스쿨, 바젤, 스위스

개인전

2023 팔레드 도쿄, 파리, 프랑스
2022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 이탈리아
ICA, 밀라노, 이탈리아
2021 해프닝으로서의 나, 전력공장, 토론토, 캐나다
해프닝으로서의 나, 코펜하겐 현대미술관, 코펜하겐, 덴마크
낯선 사람, 팔라쪼 카스텔무르, 스탬파, 스위스
스팡현대미술관, 난징, 중국
2020 ZEIGE! 마이어 리거, 베를린, 독일
우리의 남쪽, 조슬린 울프 갤러리, 파리, 호망빌르, 프랑스
2019 인간으로서, 베른미술관, 베른, 스위스
인간으로서, 현대미술관, 바르샤바, 폴란드
인간으로서, 예술의 집, 뮌헨, 독일

모든 것은 동등하게 중요하다,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 마드리드, 스페인

자세히 살펴보세요, 브레겐츠 쿤스트하우스, 브레겐츠, 오스트리아

2018 웃어야 한다, 마이어 리거, 카를스루에, 독일

2017 devoir-aimer, 조슬린 울프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6 Auf Augenhöhe, 킬 쿤스트할레, 킬, 독일 mare nostrum, 마이어 리거,, 베를린, 독일

1977년부터 2016년까지 종이로 그린 그림과 작품, Blondeau & Cie, 제네바, 스위스

2015 Körperlich/corporel, 아르가우 쿤스트하우스, 아라우, 스위스

2014-2015 Bestandesaufnahme, Oberrheinischer 미술상 2014, 오펜부르크 시립 미술관, 독일

2014 Körperlich/corporel, 파리 스위스 문화원, 파리, 프랑스

Schlachtfeld/alterswerk, 조슬린 울프 갤러리, 파리, 프랑스

Körperlich, 마이어 리거 갤러리, 카를스루에, 독일

2012 Lachen bei gefahr, 바덴 뷔르템베르크 미술협회, 카를스루에, 독일

미리암 칸, meine juden, atombomben und andere arbeiten, Wako words of art, 도쿄, 일본

2011 데이비드 로버츠 재단 피츠로비아, 런던, 독일

DAS WILDE LIEBEN + andere arbeiten, Centre d'Art Passerelle, 브레스트, 프랑스

Sarajevoarbeit/le travail Sarajevo, 조슬린 울프 갤러리, 파리, 프랑스

엘리자베스 디 갤러리, 뉴욕, 미국

2009 마이어 리거, 베를린 – 카를스루에, 독일

조슬린 울프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08 갤러리 더블로그, 오슬로, 노르웨이

Stiftung Sculpture at Schoenthal, 쇤탈 수도원, 스위스

2007 Bellezza/Stilwechsel, 커티 갤러리 + 공동 현대 미술, 밀라노, 이탈리아

2006 Überdachte fluchtwege, 키르히너 미술관, 다보스, 스위스

2003 Fundación La Caixa, 마드리드, 스페인

2002 건축의 꿈, 파스쿠아트센터, 비엘, 스위스

1999 리바라 성, 현대미술관, 리바라, 이탈리아

1998 베를린 미술 아카데미 (케테 콜비츠 상), 베를린, 독일

1996 UMGEBUNG–WAS MICH ANSCHAUT, 본 미술협회 / 자르브뤼켄 시립미술관, 본, 자르브뤼켄, 독일

1995 Körperlich, Raum an der Art 26'95, 스탐파, 바젤, 바젤, 스위스

Körperlich, Obala Art Center, 사라예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993 UNBENENNBAR (was mich anschaut), 취리히 쿤스트하우스, 취리히, 스위스

1991 웨스트 바커 드라이브 갤러리, 시카고, 미국

1990 VERWANDTSCHAFTEN, 코너하우스 맨체스터, 맨체스터, 영국

1987 LESEN IN STAUB, Gemeente 미술관, 아른헴, 네덜란드

LESEN IN STAUB und Arbeiten von 1976-88, Haus am Waldsee, 베를린, 독일

LESEN IN STAUB – weibliche Monate, 하노버 미술협회, 하노버, 독일

1986 STRATEGISCHE ORTE, DAAD 갤러리, 베를린, 독일

STRATEGIC PLACES, 갤러리 프락시스, 프리맨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1985 STRATEGISCHE ORTE, 주립 미술관, 바덴바덴, 독일

STRATEGISCHE ORTE 1985/86, 시립미술관, 본, 독일

1984 DAS WILDE LIEBEN, 라쇼드퐁 미술관, 라쇼드퐁, 스위스

Frauen, frauenräume, état de guerre, DAS WILDE LIEBEN, 베네치아 비엔날레, 베니스, 이탈리아

1983 The CLASSIC LOVE – 이기적인 여성, 바젤 쿤스트할레, 바젤, 스위스

STAMPA, 바젤, 스위스

1982 WACH RAUM (I), 갤러리 콘라드 피셔, 취리히, 스위스

단체전(ROOM INSTALLATIONS)

2017 도큐멘타 아테네, 베나키 미술관, 그리스

2016 친애하는 친구: 현대 컬렉션 기증자에 대한 찬사, 조르주 퐁피두 센터, 파리, F프랑스

2010 야생의 사랑, 아트 언리미티드, Art 41 바젤, 바젤, 스위스

2009 공격의 대상, 데이비드 로버츠 예술 재단, 런던, 영국

2006 Überdachte fluchtwege, MGK 바젤 현대미술관, 바젤, 스위스

1995 당신의 형제 아벨은 어디 있습니까?, 폴란드 국립 미술관, 바르샤바, 폴란드

1994 창백함 너머에서,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더블린, 아일랜드

1993 Über-Leben, 본 미술협회, 본, 독일

1992 장면 전환, 프랑크푸르트의 현대미술관, 프랑크푸르트, 독일

1990 Zur Sache selbst: 20세기의 여성 예술가들, 비스바덴 미술관, 비스바덴, 독일

1988 불가능한 자아, 위니펙 갤러리 + 밴쿠버 아트 갤러리, 위니펙, 밴쿠버, 캐나다

1987 Zeichnungen, 보이만스 판뵈닝언 미술관, 로테르담, 네덜란드

조용한 오후, 취리히 쿤스트하우스, 취리히, 스위스

1986 전략적 위치, 시드니 비엔날레, 시드니, 오스트리아

1985 스위스 미술의 교차 흐름, 서펜타인 갤러리, 런던, 영국

독특한 감각을 지닌 예술, 20세기 박물관, 비엔나, 오스트리아

1983 Künstlerräume im Kunstverein und anderswo, 함부르크, 독일

1982 WACH RAUM III, 취리히 쿤스트하우스, 취리히, 스위스

WACH RAUM II, 도큐멘타 7 (vor Eröffnung abgehängt), 카셀, 독일

1981 6명의 바젤 아티스트, 바젤 쿤스트하우스, 바젤, 스위스

단체전

2022 Résister, encore, Musée Cantonal des Beaux Arts, 로잔, 스위스

에드바르 뭉크. In Dialogue, 알베르티나 미술관, 비엔나, 오스트리아

2021 피노 컬렉션, 파리, 프랑스

아르침볼도, 퐁피두 메츠 센터, 프랑스

크레스포 재단,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 프랑크푸르트, 독일

또 다른 에너지: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힘, 모리미술관, 도쿄, 일본

2020 휴머니즘은 죽었는가?, 뉴욕현대미술관, 뉴욕, 미국

나의 도착증은 진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다, 포리미술관, 포리, 핀란드

2018 Quel Amour!?, 현대미술관, 마르세유, 프랑스

Baltic Triennal 13, Vilnus, 리투아니아, 리가, 라트비아, 빈센트 오노레에 의해 큐레이팅

21회 시드니 비엔날레 카타오카 마미에 의해 큐레이팅

2017 섹슈얼리티 이야기, 상파울루 아시스 샤토브리앙 미술관, 브라질 상파울루

Club Nature, Une une une, 페르피냥, 프랑스

Vantablack, 조슬린 울프 갤러리, 파리, 프랑스

도큐멘타 14, 아테나로부터 배우기, 카셀 독일 + 아테나, 그리스

Schlachtfeld / Alterswerk, Art Parcours, 아트바젤, 바젤 문화 박물관, 바젤, 스위스

2016 Prière de toucher – Le tactile dans l'art, 팅겔리 미술관, 바젤, 스위스

달의 어두운 면, 큐레이터 Konrad Bitterli and Matthias Wohlgemuth, 장크트갈렌 미술관, 스위스

2015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초현실주의부터 현재까지,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더블린, 아일랜드

La Chose, 큐레이터 Anne Bonnin, La Synagogue de Delme, 프랑스

Être Chose, 큐레이터 Marianne Lanavère et Gyan Panchal, 국제 조경 예술 센터, 보몽-듀-락, 프랑스

2014 그룹 쇼, Zwischenräume, 취리히, 스위스

Humannonhumain, 리카 재단, 파리, 프랑스

Les yeux seuls sont encore capables de pousser un cri, Dvir 갤러리, 텔아비브, 이스라엘

2013/2014 데카르트의 딸, 스위스 인스티튜트, 뉴욕, 미국

De leur temps (4), 2010/2013, Regards croisés de 100 collectionneurs sur la jeune création,

Centre d'art Le hangar à Bananes, 낭트, 프랑스

2013 1963-2013, 본 미술협회, 본, 독일

안에 머물러라, 갤러리 메자닌, 비엔나, 오스트리아

2012 Les Prairies, 현대 미술 비엔날레, 렌, 프랑스

나뭇잎의 집, 1악장, 데이비드 로버트 재단, 런던, 영국

내부는 항상 여름입니다, 안톤 컨 갤러리, 뉴욕, 미국

10 ans, Le Plateau, 파리, 프랑스

2011-2012 6명의 바젤 아티스트, 쿤스트할레 바젤, 바젤, 스위스

2011 그룹쇼, 리히텐슈타인 미술관, 바두츠, 리히텐슈타인

2010-11 Les nuits électriques - 퐁피두 센터의 야외 벽, 실제 예술의 다중 매체 복합, 모스크바, 러시아, Philippe-Alain Michaud & Laurent Le Bon에 의해 큐레이팅

2010 Module mai, 팔레드 도쿄, 파리, 프랑스

2009 Pieter Vermeersch hosts... 갤러리 Wolff 소속 3명의 아티스트, ProjecteSD, 바르셀로나, 스페인

공격의 대상, 우주 시대의 조각 전시와 병행하는 개입 프로그램,데이비드 로버트 재단, 런던, 영국

Eté 2009, 그룹쇼, 조셀린 울프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08 Schöner bauen - besser schauen, 라이너 미술관, 아펜첼, 스위스

2005 회상, MGK 바젤현대미술관, 바젤, 스위스

아라우 미술관 재개장, 아라우, 스위스

스위스 메이드 (부서짐의 예술), 하우저앤워스 컬렉션 작업, 코브라 현대미술관, 암스텔펜, 네덜란드

2004 컬렉션 Van de Loo, 베를린 신국립 미술관, 베를린, 독일

2002 미술과 충격, Haus am Lützowplatz, 베를린, 독일

허구의 집, 하우저앤워스 컬렉션, 장크트갈렌, 스위스

2001 트랜스미션 갤러리, 글라스고, 아일랜드

2000 Kabinett der Zeichnung, 순회 전시 Henstford und Deutschland, 독일

1997 Alpenblick, 쿤스트할레 비엔나, 비엔나, 오스트리아

1995 스위스를 넘어, 홍콩 예술관, 홍콩, 중국

1989 Das Verhältnis der Geschlechter, 본 미술협회, 본, 독일

풍경사진, 함부르크 미술협회, 함부르크, 독일

1987 예술의 나라(순회 전시)ICA 런던, 런던, 영국

1985 평화의 비엔날레를 맞이하다, 함부르크 쿤스트하우스/미술협회, 함부르크, 독일

1984 뉴욕현대미술관 재개관, 뉴욕, 미국

1983 Szene Schweiz, 쾰른 미술협회, 쾰른, 독일
1979 페미니스트 아트 인터내셔널, 헤이그 /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참고문헌

도록

미리암 칸, 분노에 찬 글쓰기, 캐슬린 부흘레, 베른 미술관, 캐롤라인 슐츠, 하체 칸츠, 2019
미리암 칸, 모든 것이 동등하게 중요하다,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 2019
미리암 칸, 인간으로서, 바르샤바 현대미술관, 폴란드, 2019

미리암 칸, 자세히 보기, 쿤스트하우스 브레겐츠, 2019
미리암 칸, 인간으로서의 나, 하우스 데르 쿤스트, 뮌헨, 2019
미리암 칸, AUF AUGENHÖHE/눈높이에서, 쿤스트할레 킬, 2016
미리암 칸, Bestandesaufnahme, Oberrheinischer상 수상 2014, 오펜부르크 시립미술관, 독일, 2014
미리암 칸, 1979-2005-2010, 파리 스위스 문화원 에디션/ 아르가우 쿤스트하우스 아라우, 2014 *
미리암 칸, 응접실 고백, 런던, 2011
미리암 칸, Überdachte fluchtwege, 키르히너 미술관 다보스, 슈타이들, 2006 *
스위스 메이드 (부서짐의 예술), 하우저앤워스 컬렉션 작업, Waanders, 2005
미리암 칸, Fundacion «la Caixa», 전시 도록 11.2. - 20.4.2003, 마드리드, 2003
전시 도록 - 건축의 꿈, Centre Pasqu'Art Biel 2002, 하체 칸츠 베를라그, 2002 *
전시 도록 – 리베라의 성, 현대미술관, 리바라, 1999
37번 편지, 케테 콜비츠 상 1998, 베를린예술대학교, 1998
미리암 칸, 오슬로 더블로그 갤러리, 1997 *
UMGEBUNG (was mich anschaut), 본 미술협회와 자르브뤼켄 시립미술관, 출판사 위르겐 하우저, 1996 *
WAS MICH ANSCHAUT, 취리히 쿤스트하우스, 출판사 위르겐 하우저, 1993*
전략적 위치, DAAD-갤러리 베를린, 1986
전략적 위치, 본 시립미술관, 1986 *
Kunst mit Eigen-Sinn, 빈 20세기 미술관, 1985
스위스 미술의 교차 흐름, 서펜타인 갤러리 런던, 1985
야생의 사랑, frauen, frauenräume, état de guerre, 베니치아 비엔날레, 1984 *
Szene Schweiz, 퀼른 미술협회, 1983
고전적인 사랑, 바젤 쿤스트할레, 1983 *

WACHRAUM II, 도큐멘타 7, 1982

페미니스트 아트 인터내셔널, den Haag, 1981

6명의 바젤 아티스트, 바젤 쿤스트할레, 1981 *

Edith Jud: 미리암 칸- ohne Umwege; 영화 50분, 스위스 텔레비전 «Sternstunde Kunst» * 도록은 미리암 칸에 의해 디자인, 원본의 복제본

보도 기사

2021 퍼플, 봄 2021, Olivier Zahm

2020 미리암 칸, 아트포럼, 10/11. 2020, Elisa Schaar

Corps à Corps avec 미리암 칸, AWARE, 14.02.2020, Matylda Taszycka

미리암 칸의 불안한 신체들, Numéro Art, 2020년 가을, Elisabeth Lebovici

2019 미리암 칸 à l'état brut, Connaissance des arts, 2019년 2월, Guillaume Morel

미리암 칸,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와의 대화, CURA 32

분노의 이유, La Liberté Magazine, 02.23.2019, Aurélie Lebreau IM FLUSS DER BILDER, 보그 매거진, Kerstin Lindemann

2018 Zeit Magazin, n.6, Herlinde Koelbl

2017 헛소리 금지, Monopol Nr 01/2017, text Jens Hinrichsen

Der Rücken und das Lichet, Das Magazin, n°10, 11 Mäez 2017,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미리암 칸의 취약한 영혼, Liberation, 12/06/2017, Judicaël Lavrador의 기사 Arte.TV. Metropolis

2016 DAS KÖRPERLICHE, DER KÖRPER!, 쿤스트포럼 인터내셔널, 244호, Jens Rönnau의 기사

2015 mare nostrum, 사우스 매거진, 6호, 2015년 가을/겨울

2014 미리암 칸: "섹스와 전쟁은 삶과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허밍턴 포스트, Charlotte Montpezat의 기사, 2014년 11월

미리암 칸, un trait décisif, Le Courrier, Samuel Schellenberg의 기사, 9월

미리암 칸의 감성적인 미로, Le Temps, Laurent Wolf의 기사, 9월

Les statues vivent aussi, Zérodeux, Cédric Aurelle의 기사, 2014년 7월

미리암 칸, körperlich, Spike, Pablo Larios의 기사, 2014년 봄

미리암 칸, Le phare n°16, 파리 스위스 문화원, 2014년 1월

2013 Immer scharf am Abgrund, in : Art, Gerhard Mack의 기사, 2013년 4월

2012 미리암 칸, Wertical, 2012년 9월

Hinrichtung in Zeitlupe, Süddeutsche Zeitung, Catrin Lorch의 기사, 2012년 10월

미리암 칸, Lachen bei Gefahr, Sonnendeck, 2012년 9월

Gespensterhafte Kunst, Badisches Tagblatt, Georg Patzer의 기사, 2012년 9월

Schön schrecklich, Badische Neueste Nachrichten, Friedemann Dupelius의 기사, 2012년 9월

스위스 화가 미리암 칸의 다가오는 전시 „Lachen beu gefahr" at Badischer Kunstverein, 독일 허핑턴 포스트 아트앤컬쳐, Priscilla Frank의 기사, 9월

미리암 칸, Lachen bei Gefahr, INKA, 2012년 9월-10월

미리암 칸, Lachen bei Gefahr, Klappe Auf, 2012년 9월

미리암 칸, Lachen bei Gefahr, Artline, 2012년 9월

2011 Haiku 리뷰 : 공포, 형태 및 유혹, 허핑턴 포스트 아트, Peter Franck의 기사, 3월

미리암 칸, 뉴요커, 2011년 3월

미리암 칸, 파리 예술, Anne Lehut의 기사, 2011년 3월

미리암 칸, 수호자, 로버트 클라크의 기사, 2011년 10월

2009 미리암 칸, 파리 예술, 2009년 2월

미리암 칸, Le figaro, 2009년 2월

C'est purement théorique, Télérama, Olivier Cena의 기사, 2009년 2월

미리암 칸, Le Phare, 2009년 2월-4월

미리암 칸, Art Press, Marie-Cécile Burnichon의 기사, 2009년 3월

미리암 칸, Le Monde, édition du 14/06/2009

Purple MAGAZINE
– The Island Issue #35 S/S 2021

MIRIAM CAHN

From the isolated bunker studio she created for herself in a swiss valley near italy, the cult second-wave feminist artist is still fighting for the truth. her visceral paintings and installations are a corporeal performative act, blurring genders and sexual categories, screaming for justice, and attacking masculine toxicity.

그녀는 이탈리아 근처 스위스 계곡에 위치한 고립된 벙커 스튜디오에서 2세대 컬트 페미니스트 예술가로서 여전히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강렬한 감정이 담긴 그림과 설치 작품들은 젠더와 성적 구분을 흐리게 하고, 정의를 외치며 남성적인 독성을 공격하는 유형의 수행 행위입니다.

OLIVIER ZAHM – You've lived through several different periods of contemporary art since the 1970s. And at this stage of your life, you're based in a mountain valley in the Southern Alps, and I have the impression – tell me if I'm mistaken – that you live in a kind of autarky.
올리비에 잠 – 당신은 1970년대부터 현대 미술의 여러 다른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현재 인생의 단계에서 당신은 남알프스의 산골짜기에 있고 저는 당신이 일종의 자급자족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MIRIAM CAHN – It's Val Bregaglia, on the Swiss side, on the border with Italy.
미리암 칸 –이탈리아와의 국경에서 스위스 쪽에 있는 발 브레가글리아(Val Bregaglia)입니다.

OLIVIER ZAHM – Tell me about this place, and your decision to live and work in relative isolation.
올리비에 잠 – 이 장소에 대해, 그리고 비교적 고립된 곳에서 살고 일하기로 한 당신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MIRIAM CAHN – For me, it's no different from the city. I've lived in a lot of cities – Paris for a year, then four years in Berlin, six months in London. I also lived in Basel. There's no real difference because wherever I am, I always work and live in my studio. But I do go out walking a lot. These days, I enjoy walking in Val Bregaglia because it's very beautiful. But it's just as great to walk around Berlin.

미리암 칸 – 저에게 이곳은 도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파리에서 1년, 베를린에서 4년, 런던에서 6개월, 그리고 바젤에서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저는 항상 제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발 브레갈리아는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곳을 걷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건 베를린을 돌아다니는 것 만큼 멋진 일입니다.

OLIVIER ZAHM – So, is your studio like a monastic cell, an isolation zone?
올리비에 잠 - 그럼, 당신의 스튜디오는 수도원의 감옥 같은 격리 구역입니까?

MIRIAM CAHN – No, it's just a workplace. It's not monastic, it's not a cell. The space that I've made here, along the roadside, is huge. It's the best possible setup for working. Besides, it's not completely isolated here. It's not the idyllic cliché of a valley in the Southern Alps. Don't forget that Alberto Giacometti was born here, for example. But it's different from working in the city, that's for sure.
미리암 칸 - 아뇨, 그냥 일터예요. 수도원도, 감방도 아닙니다. 여기 길가를 따라 만든 공간은 매우 넓으며 작업에 가장 적합한 환경입니다. 게다가, 이곳이 완전히 고립된 장소는 아닙니다. 남알프스에 있는 계곡의 그런 진부한 전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도 확실히 도시에서 일하는 것과는 다르긴 합니다.

OLIVIER ZAHM – It´s a very cool studio – modernist and brutalist.
올리비에 잠 – 모더니스트적이면서 브루탈리스트적인 매우 멋진 스튜디오라고 생각합니다.

MIRIAM CAHN – I designed it with the architect Armando Ruinelli, who´s a typical Alpine architect but internationally renowned, like Herzog & de Meuron. He´s one of those architects who combine contemporary architecture with the specificities of life in the Alps.
미리암 칸 - 전형적인 알프스 건축가이지만 Herzog & de Meuron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인 Armando Ruinelli와 함께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는 현대 건축과 알프스에서의 삶의 특수성을 결합한 건축가 중 한 명입니다.

OLIVIER ZAHM – It´s a Suprematist concrete block, placed in a world of stone and vegetation.
올리비에 잠 – 돌과 초목의 세계에 놓여진, 절대주의적 콘크리트 블록이네요.

MIRIAM CAHN – I also like the idea, now that I´m older and have rented a lot of studios and traveled a lot, that this should be the last home and the last studio.
미리암 칸 -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미 많은 스튜디오를 빌려봤고 여행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이곳이 나의 마지막 집이자 마지막 스튜디오여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OLIVIER ZAHM – Do the mountains influence you? Do you feel a special energy?
올리비에 잠 – 산이 당신에게 영향을 줍니까?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지나요?

MIRIAM CAHN – Because of my family and my childhood, I have always known the mountains. We used to go for epic walks. For me, it´s normal that the mountain should be there, facing me. And I do still walk a lot in the mountains. I´m over 70 years old, and I don´t walk like I used to, but today, for example, I went for a short wander in my snowshoes. I love it.
미리암 칸 - 저의 가족,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 덕에 저는 항상 산을 알고 지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우 장대한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산이 거기 있고 이를 마주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도 산을 자주 걷곤 합니다. 70살이 넘었기에 예전처럼 많이 걷지는 못합니다만, 오늘 스노우 슈즈를 신고 잠시 거닐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OLIVIER ZAHM – Regarding your work, I get the impression that the human or animal figures that feature in your paintings – whichever sex or nondefinition of sex they depict – are very isolated, as if they´re at the center of their own solitude. Each of your representations of living beings is like an appeal to the other, for contact...
올리비에 잠 - 당신의 작품과 관련해서 저는 당신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간이나 동물의 모습이 그들이 묘사하는 젠더나 성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마치 자신들의 고독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매우 고립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표현은 각각 다른 존재에게 호소하는 것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접촉을 위해서..

MIRIAM CAHN – Yes, contact is important. That´s why my figures are often the same size as the person looking at them. But what you´re saying is a personal interpretation. I wouldn´t comment on that.
미리암 칸 – 네, 접촉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작품의 인물들은 종종 이것을 보는 사람과 크기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해석이기에 전 이에 대해선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OLIVIER ZAHM – You once said, "To sleep, to eat, to cook, to paint is all the same: it´s life." So, you don´t separate painting from everyday life?
올리비에 잠-당신은 "잠자는 것, 먹는 것, 요리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은 모두 똑같다. 그것이 삶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림을 그리는 것과 일상을 분리하지 않는 건가요?

MIRIAM CAHN – Those words are exactly right. First of all, I don´t just do painting. I´m not a painter – I´m an artist. I also do drawings, photos, etc. I even make texts. In any case, a small drawing is the same as a big painting. And, as I say in that sentence, my life is all one – painting well, cooking well. It´s the same.
미리암 칸 –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우선, 저는 그림만 그리지 않습니다. 저는 화가가 아니라 예술가 입니다. 저는 그림도 하고 사진도 하고, 심지어 글도 씁니다. 아무튼 작은 드로잉도 저에겐 큰 회화와 같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그 문장에서 말했듯이, 제 삶은 하나 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요리를 잘하는 것. 그것은 동일합니다.

OLIVIER ZAHM – You're against the hierarchy of values imposed by the art market?
올리비에 잠 – 당신은 미술 시장이 부과하는 가치의 위계화에 반대하십니까?

MIRIAM CAHN – There's nothing I can do if a big oil painting sells for a lot more than a drawing. It's good for me because I make more money, but it's just the market. For me, everything has the same value: painting, everyday life, drawings.
미리암 칸 – 큰 유화 작품이 드로잉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린다면 어쩔 수 없지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나에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장일 뿐입니다. 저에겐 그림, 일상, 드로잉 이 모든 것들이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OLIVIER ZAHM – And the sun? You're someone who works with bright colors – do you get enough sun in the valley?
올리비에 잠 – 그럼 태양은요? 당신은 밝은 색상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작가인데, 계곡에서 햇볕을 충분히 쬐서 그런 건가요?

MIRIAM CAHN – I'm at the lowest point in the valley, and I haven't had sun for four months now. But on a day like today, when it's lovely and very cold... I don't know how much the sun influences my work. I don't think it does, in fact. Well, maybe a little. But television influences me, too, and what I'm reading. Everything influences me.
미리암 칸–저는 계곡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어서 최근 4개월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날씨가 좋고 매우 추울 때... 태양이 제 작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글쎄요, 아마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TV도 저에게 영향을 주고요. 내가 읽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OLIVIER ZAHM – And you stay informed on social media?
올리비에 잠 - 당신은 소셜 미디어에서 꾸준히 정보를 얻고 계십니까?

MIRIAM CAHN – I'm very well informed. I read four local and international newspapers every day. I watch TV, and I listen to the radio. I'm not on social media. I don't want to know what everyone is saying about everyone else. Maybe people get their information like that nowadays, but not me.
미리암 칸 – 저는 정보에 아주 밝습니다. 매일 4개의 지역 신문과 국제 신문을 읽고, TV도 보고, 라디오도 듣지만 SNS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정보를 얻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OLIVIER ZAHM – No Facebook, Instagram, Twitter?
MIRIAM CAHN – No.
올리비에 잠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전혀 안 하시나요?
미리암 칸 - 안 합니다.

OLIVIER ZAHM – Melanie Klein said, "The world is round." She went into that roundness, and she made a book. So, what is the world, according to Miriam Cahn? And are you angry or optimistic about the state of the world?
올리비에 잠 - Melanie Klein은 "세상은 둥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둥근 원형 속으로 들어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미리암 칸, 당신이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세태에 대해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낙관적입니까?

MIRIAM CAHN – Of course, I'm angry. When I read, for example, what happened at the Capitol in Washington, with all those people from the far right, naturally it makes me mad. It's only normal. I come from a family that has always been very concerned about politics. So, yes, politics can make me mad. And what's even more serious for me, I think, is the way people here, in Europe – and in Switzerland, even if it's not in Europe – are closing themselves off. That, too, is in my paintings, in my drawings, in everything. I don't understand why they don't let people who want to work here in, why they leave them to drown in the Mediterranean. We can't say both that we have the Rights of Man, that human dignity matters, etc., and then act like that. It's getting really difficult to manage our democracies. It's not working any more.
미리암 칸 – 당연히 분노하죠. 예를 들어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어난 사건들을 읽을 땐,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저를 화나게 합니다. 이건 정상일 뿐이에요. 저는 항상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가정에서 났습니다. 그래요, 정치가 절 화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더 심각한 것은 여기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폐쇄하는 방식입니다. 스위스에 사는 사람들, 심지어 유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이는 저의 그림과 드로잉, 제 모든 것에 존재합니다. 왜 이곳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을 들여보내 주지 않는지, 왜 그들이 지중해에서 익사하도록 내버려 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인권을 지니고 그 존엄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죠. 우리의 민주주의를 관리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OLIVIER ZAHM – A lot of your paintings are about those migrants who are adrift, whom we allow to drown at sea.
올리비에 잠 - 당신의 많은 그림들이 우리가 바다에서 익사하도록 내버려둔 떠돌이 이주민들에 관한 것이군요.

MIRIAM CAHN – Yes. You asked me about that impression of solitude in my paintings. This is what it's really about: we're always alone, we're left alone, we leave them alone, and then we let them drown, we leave them in the cold snow at customs on their way here. That's what interests me, and it's an existential thing. Perhaps, one day, it'll be our turn, highly privileged people like me and you, not to be able to move, or to have to leave. We're already seeing this in our restricted movements in everyday life with the Covid-19 crisis.
미리암 칸 – 맞아요. 당신은 제 그림에 나타난 고독한 인상에 대해 물었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혼자이고, 홀로 내버려지고, 그들을 홀로 내버려두고, 익사하게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오는 길인 세관, 차가운 눈 속에 그들을 내버려두죠. 이것이 바로 제가 흥미를 느끼는 지점이고, 그것이 실존적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차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저와 당신처럼 특권을 가진 이들이 움직일 수 없거나 떠나야 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일상에서 제한된 움직임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OLIVIER ZAHM – Your painting has a political center, a political heart?
MIRIAM CAHN – There is no center because I'm just as happy to paint animals or plants, say. There is no center with me – it's all one thing. With my work, I provide commentaries on the world.

올리비에 잠- 당신의 그림은 정치 중심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미리암 칸– 이는 동물이나 식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은 없습니다. 저에게 중심이란 건 없고 모두 하나입니다. 저는 제 작업을 통해 세계에 대한 비판점을 제공합니다.

OLIVIER ZAHM – And these commentaries are channeled by your power of empathy?
올리비에 잠 - 그리고 이러한 평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에 의해 전달되는 건가요?

MIRIAM CAHN – I don't agree with this kind of distinction between ideas and emotions. It's the same thing. If you don't have any emotions, you can't do politics. If you don't have any empathy, you can't think politically. And then, we must stop saying that artists, and women in particular, do everything out of their emotions, their intuition. The thing that matters is work. And work has certain rules, daily rules: you need technical knowledge, ideas. Intuition annoys me. If you look carefully at my paintings, you can see it's much more complicated than intuition and emotion.
미리암 칸– 저는 아이디어와 감정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같은 것입니다. 감정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으며, 공감이 없으면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술가, 특히 여성들이 감정과 직관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입니다. 그리고 일에는 특정한 규칙, 매일의 규칙이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직관은 저를 짜증나게 합니다. 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관이나 감정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OLIVIER ZAHM – I'm with you there – that art can't be reduced to a precise source.
OLIVIER ZAHM – 예술을 정확한 원천 하나로 축소시킬 수 없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MIRIAM CAHN – Just drop this idea of art having a source, this idea about some source that artists have and others don't. One thing is certain, which is that it changes every minute. I'm not going to specify the source. You have to look at my works, my art. You have to read my books. If they interest you, if they speak to you, then that's because something is happening, and that's what interests me about art. You can never specify what you're doing. The artists who do that are bad artists.

미리암 칸- 예술이 하나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예술가들은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어떤 원천에 대한 생각 말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작품을 보세요, 제 예술을요. 제 책을 읽으셔야 해요. 만약 그것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여러분에게 말을 건다면, 그것은 뭔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예술에 흥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절대 명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예술가들은 나쁜 예술가들입니다.

OLIVIER ZAHM – I still think that you keep a purity of inspiration, beyond the violence of certain paintings. Whether it's a flower, a house, or a couple.
올리비에 잠 - 저는 여전히 당신이 특정 그림들의 폭력성 너머에 영감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이든, 집이든, 커플이든 말이죠.

MIRIAM CAHN – That's what happens every day. It's not pure – it's what happens.
미리암 칸-그것은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OLIVIER ZAHM – Keeping the door open, you could say, to humanity, to revelations.
올리비에 잠- 인간성과 폭로에 대한 문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MIRIAM CAHN – Always with the big words. I don't use them. These big words don't say anything. Humanity: that doesn't mean anything.
미리암 칸-항상 거창한 단어들.. 저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창한 말들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인간성(Humanity)', 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OLIVIER ZAHM – So, a flower painted by you is not a symbol of humanity?
올리비에 잠 – 그럼 당신이 그린 꽃은 인류의 상징이 아닙니까?

MIRIAM CAHN – No, it definitely is not a symbol. It's a flower, not a symbol. And everyone sees what they want to see. If you want to see it as a symbol of humanity, that's your business. It's your own thoughts that make you say that. For me, a flower is a flower, and it stays a flower.
미리암 칸 – 네, 그것은 분명히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이 아니라 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것을 인류의 상징으로 보고 싶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정입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건 당신의 생각이에요. 나에게 꽃은 꽃이고, 이것은 꽃으로 남습니다.

OLIVIER ZAHM – So, if a flower is a flower...
올리비에 잠 - 그러니까, 꽃이 꽃이라면...

MIRIAM CAHN – It can't be a pipe. But what if it wasn't a flower, though? In any case, it's not a symbol of something else, or an idea. That's a lousy idea. It's always a bit complicated to look at art like that because it tries to define something that is not defined, and that you can't define, and that shouldn't be defined.
미리암 칸-그것은 파이프가 될 수 없죠. 하지만 꽃이 아니라면요? 어떤 경우든, 그것은 그 밖에 무언가 혹은 어떤 아이디어의 상징이 아니며, 이는 형편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술을 보는 것은 언제나 조금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정의되지 않는 것, 정의할 수 없는 것, 정의해선 안 되는 것을 정의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OLIVIER ZAHM – So, if the flower, or the woman, or the couple, or the house in a work by Miriam Cahn is a flower, a woman, a couple, or a house, then perhaps we could say that you are trying to paint the world in the most direct, essential, innocent way.
올리비에 잠 - 미리암 칸 작품 속에 있는 꽃, 여자, 부부, 집이 그저 꽃, 여자, 부부, 집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당신이 가장 직접적이고 본질적이며 순수한 방식으로 세상을 그리려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IRIAM CAHN – No, it's not innocent.
미리암 칸-아니요. 이건 순수하지 않습니다.

OLIVIER ZAHM – Life, the immediacy of life.
올리비에 잠- 삶, 삶의 직접성.

MIRIAM CAHN – My works are like words. That´s why it´s important that, as often as possible, I install my own exhibitions myself. It´s always very quick, very performative. I always go very fast, and it´s always finished very soon. I use my own works, my drawings or oil paintings, as contents, as words. And these contents – house, flower, woman, man, defined or undefined – I combine them like a writer or a poet. I combine words that already exist. That´s the way I work, and the interpretation is open, free.
미리암 칸 – 제 작품은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전시를 가능한 한 자주, 직접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매우 빠르고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말이죠. 저는 항상 빠르게 진행하고, 빨리 끝냅니다. 저는 제 작업, 드로잉, 유화 등을 콘텐츠로, 말로 사용하고 집, 꽃, 여자, 남자, 정의되거나 정의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을 작가나 시인처럼 결합합니다. 저는 이미 존재하는 단어를 결합하죠. 이것이 바로 제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해석은 열려 있고 자유롭습니다.

OLIVIER ZAHM – So, that means the installation of your paintings is like a commentary preceding the experience of the exhibition?
올리비에 잠 - 그럼 당신의 그림 설치가 전시 경험 이전의 해설과 같다는 뜻인가요?

MIRIAM CAHN – Yes, the exhibition is the place, the space that gives the works an almost performative aspect, that makes the whole thing a kind of commentary on the now.
미리암 칸 - 네, 전시는 거의 작품들에 성과적인 측면을 부여하는 장소이고, 모든 것을 지금에 대한 일종의 해설로 만드는 공간입니다.

OLIVIER ZAHM – So, painting, as such – just the frame of the picture – is not enough for you?
올리비에 잠- 그렇다면 그림 그 자체 즉, 단지 그림의 액자는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MIRIAM CAHN – I´d rather you didn´t use the word "painting" for my work. I prefer to talk about my works, which can be drawing, photography, texts, too. It´s no use thinking in a framework – it´s not necessary.
미리암 칸–저는 당신이 제 작품에 "그림(Paint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드로잉, 사진, 텍스트가 될 수 있는 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틀 안에서 생각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OLIVIER ZAHM – There´s no framework.
올리비에 잠– 액자(틀)가 없다.

MIRIAM CAHN – No, no frame. You don´t have to think about painting, oil painting, as a priority, to make it into framework. There are thoughts, there is the installation, there´s me who is the center of the installation, which I put in place in a physical, corporeal way when I´m the one who makes my installations, in my way. That exists, but it´s not the framework of my painting. I stopped being interested in that a long time ago.
미리암 칸 - 네, 없습니다. 예술을 액자 안으로 집어 넣기 위해 회화, 유화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들과 설치와 이 설치의 중심이 되는 제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제 방식대로 설치 작업을 할 때 저는 제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으로 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존재하지만, 제 그림의 뼈대는 아닙니다. 저는 오래 전에 그것을 향한 관심을 멈췄습니다.

OLIVIER ZAHM – I also noticed that, in your videos and in the photos you made for Purple, you like to move around with your pictures.
올리비에 잠– Purple을 위해 만든 동영상과 사진에서 당신은 당신의 그림을 지니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MIRIAM CAHN – Ah, yes, I like that.
미리암 칸– 아 맞아요. 좋아해요.

OLIVIER ZAHM – It´s as if they became mobile.
올리비아 잠 - 마치 그들이 유동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MIRIAM CAHN – They have to be light, even the big formats. That's why I build my own frames. Even a painting that is 10 feet by 13 feet – I have to be able to carry it myself. That's why you see me carrying these pictures in the photos or videos. It's that: the corporeal, performative content of my installations. I don't take preliminary measurements, I don't work with plans or models. I intervene in space and move the works. I come down, and we install.
미리안 칸- 크기가 크더라도 가벼워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나만의 액자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10피트 x 13피트 크기의 그림이라도, 제가 직접 들고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에서 제가 이 그림들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이죠. 그것이 바로 제 설치의 물리적이고 수행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예비 측정을 하지 않고 계획이나 모델로 작업하지도 않습니다. 공간에 직접 개입해서 작품을 움직입니다. 제가 내려오고 우리는 설치합니다.

OLIVIER ZAHM – So, there's always a bit of a 1970s performance aspect to your work?
올리비에 잠- 그래서 당신의 작업에는 항상 1970년대 퍼포먼스 같은 면모가 있는 것입니까?

MIRIAM CAHN – Yes. When I was a young artist, performance art had a big effect on me. There was a lot of it in Basel. There were lots of artists who came from Germany, Austria, Italy, and the US. These were new ideas and new forms of art that were very important to me, absolutely!
미리암 칸 – 네, 제가 젊은 예술가였을 때, 퍼포먼스 아트는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젤에 많이 있었고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미국에서 온 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퍼포먼스 아트는 확실히 저에게 매우 중요한 새로운 아이디어이자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었답니다.

OLIVIER ZAHM – The Viennese Actionists, for example?
올리비에 잠- 예를 들어 비엔나 행동주의자들 말인가요?

MIRIAM CAHN – Yes. They were new forms that got away from the idea of the frame, of oil painting, of composition, etc. This was something new. Naturally, it had to do with the use of video. That was important for a young artist like me, but I never wanted to do performance or video. I wanted to keep the practice of drawing and painting, but I wanted to do it in a way that was intellectually like them.
미리암 칸 – 네. 액자 프레임, 유화, 구성 등의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였죠. 자연스럽게 비디오의 사용과 관련이 있었고 저 같은 젊은 예술가에게는 그게 중요했지만 퍼포먼스나 비디오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수행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지적으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를 행하고 싶었습니다.

OLIVIER ZAHM – What have you kept from performance art, today?
올리비에 잠- 오늘날 퍼포먼스 아트에서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MIRIAM CAHN – Thought, the conceptual approach to art, but also the possibility of using your body as an instrument.
미리암 칸- 생각, 예술에 대한 개념적 접근, 뿐만 아니라 신체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

OLIVIER ZAHM – The body is not just in the picture, in the pictorial gesture.
올리비에 잠 - 몸은 그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이용한 표현에 있습니다.

MIRIAM CAHN – No, it's the instrument. We have to put pictorial gesture behind us – it's hopeless, really hopeless. It serves no purpose. It's the whole body that is the instrument, and the result is what it is.
미리암 칸 - 맞아요. 이것은 수단이에요. 우리는 그림을 이용한 표현을 뒤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죠. 그것은 아무 목적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단이 되는 것은 몸 전체이고, 그 결과가 그것입니다.

OLIVIER ZAHM – Right. Let's talk about the body and sexuality.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your work extremely relevant today is this impression we have of gender fluidity, that non-binarity. To be more precise, the genital organs – phallus and vagina – cannot be attributed to a defined gender. Is that something you think about, or does it come out spontaneously?
올리비아 잠 – 맞습니다. 이제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오늘날 당신의 작업을 매우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젠더 유동성, 즉 비-이분법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남근과 질과 같은 생식기 기관은 규정된 성에 의해 기인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까?

MIRIAM CAHN – It's a mixture. There are figures or characters where it's not clear if they're men or women, or in between, or something like that, but there are lots where it's very clear. You can see the penis or the clitoris very clearly.
The clitoris is something you never see in painting or drawing: it's something that, for a very long time, didn't exist, and that has now started to exist. It's important for me to be specific on that point. Today, I really want diversity to be recognized: there are men and women, and there are people who don't recognize themselves in a gender, who don't know if they're men or women, who refuse to define themselves as one gender or another, not to mention the ones who get an operation. Today, that's how it is. And I'm very happy it's like that.
MIRIAM CAHN – 혼합되어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사이인지, 그런 것들이 불명확한 인물이나 캐릭터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매우 분명한 캐릭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신은 남근이나 클리토리스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클리토리스는 회화나 드로잉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고 이제서야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점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저는 다양성이 인정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자신을 성별 안에서 인지하지 않는 사람들, 수술을 받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르고 자신을 하나의 성, 혹은 그 밖에 성으로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며, 저는 그렇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OLIVIER ZAHM – One can sense that, with you – beyond gender positions, beyond sexual organs, the individual with his phallus, the other with her clitoris – there is this possibility of exchange, that in the end, we're all the same, getting beyond this imposition of gender. Do you agree?
올리비에 잠-젠더 포지션을 넘어, 성과 관련된 장기들을 넘어서, 남근을 가진 개인과 다른 클리토리스를 가진 다른 개인은 언제나 교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당신처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의 강요를 넘어서서, 모두 같다는 의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MIRIAM CAHN – Naturally, we are all the same, and that is sexuality! But not in the history of art. If you look at how women are shown, I mean, these individuals with a clitoris and a vagina, I really like what men did, but then, that's the thing – it was done mainly by men! That's why, in art, woman is reduced to sexualized, even pornographic representations. Her identity is also reduced to the mother figure, to the Virgin Mary, or model, or muse. This is changing hugely at the moment, and I think it's really very interesting. I'm a feminist, and as women artists, we have the opportunity to invent new images. New images, not new paintings, and all that shit. With these images, you have to start showing true sexuality. And I do it from my own point of view, with my body as my instrument. This is my commentary on sexuality and on how it can be shown nowadays.

미리암 칸– 당연히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섹슈얼리티입니다! 하지만 예술의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 보여지는 방식을 보면, 제 말은 클리토리스와 질을 지닌 이 개인들을 보면 저는 남성들이 한 작업을 정말 좋아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들은 주로 남성들에 의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서 여성은 성적 대상화, 심지어 음란물 표현으로 축소되었고 여성의 정체성 또한 어머니 형상, 성모 마리아, 모델 또는 뮤즈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현재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저는 이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페미니스트이자 여성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회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이미지로 진정한 섹슈얼리티를 보여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몸을 도구로 사용하여 저만의 관점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섹슈얼리티, 그리고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논평입니다.

OLIVIER ZAHM – It's a combat for you, as a woman, against representations of the female that are imposed by men.
올리비에 잠- 당신에게 이것은 여성으로서 남성들에 의해 강요되는 여성 재현에 대한 투쟁이네요.

MIRIAM CAHN – But that's not enough. If women and men really are equal in life, like in art, and also in the art world, you have to start doing a lot more as a woman artist. And that is highly political. I wouldn't like to be a man artist because they've done it all from their point of view already.

미리암 칸 - 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성과 남성이 예술에서처럼 삶에서, 그리고 예술계에서 정말 동등하다면, 여러분은 여성 예술가로서 더 많은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극히 정치적인 일입니다. 저는 남자 예술가가 되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기 때문이죠.

OLIVIER ZAHM – All they're doing is redoing, replaying their fantasies.
올리비에 잠 – 그들이 하는 일은 그저 무언가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고, 환상을 재현하는 것뿐입니다.

MIRIAM CAHN – That's what interests me in art: you're always looking for new images, and you can make some very interesting images about sexuality. The result is that people like you don't always know what to think about the sexuality in my work. I'm exploring. In fact, there are more images of sexuality in my work than in Picasso's, say.
미리암 칸–제가 예술에서 흥미를 느끼는 것은 항상 새로운 이미지를 찾고 있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결과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제 작업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언제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 탐색 중입니다. 말하자면 사실, 제 작품에는 피카소의 작품보다 더 많은 성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OLIVIER ZAHM – Are you exploring, more particularly, female sexuality? Supposing, of course, that such a thing exists outside the relation between genders and their plurality.
OLIVIER ZAHM – 당신은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탐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은 젠더와 그 다원성의 관계 밖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요.

MIRIAM CAHN – I don't know. Things have to be left open. You can't say, "Ah women's sexuality, it's like this or like that." You can't with men's sexuality, either, for that matter. I talk about sexuality as a whole.
미리암 칸 –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 여자의 섹슈얼리티, 이거는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면 안 돼요. 그런 관점에서 남성의 섹슈얼리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섹슈얼리티 전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LIVIER ZAHM – But there is less representation of women's sexuality. It isn't translated into images as much as male sexuality is.
올리비에 잠 - 하지만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표현은 더 적고, 남성 섹슈얼리티 만큼이나 이미지로 전환 되어있지 않습니다.

MIRIAM CAHN – Exactly. But should they be separated? It's just that, up to now, artists were mainly men. They made magnificent works about sexuality, and I have no problem with that. Today, though, people are trying to look again, to see what is there, in front of us, afresh. That's why performance in the 1970s was so interesting. It was something else, something totally new, and there were a lot of women in those movements!
MIRIAM CANHN -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꼭 분리되어야 할까요? 이건 그냥 지금까지는 예술가들이 주로 남성이었고 그들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새롭게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70년대 퍼포먼스가 흥미로웠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뭔가 다른 것이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으며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운동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OLIVIER ZAHM – There were a lot of women doing performances, more than in other artistic practices.
올리비에 잠– 다른 예술 활동보다 퍼포먼스를 하는 여성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MIRIAM CAHN – Yes, because you could forget, just a little, what men had done. And you had your woman's body – you made art with your body. What I'm saying is very simple, but that was the reality, and it was new. And that produced other kinds of images. Now, things are changing, and we women artists are part of the..
미리암 칸 - 네, 왜냐하면 남성들이 했던 일을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성의 몸을 가지고 그들의 몸으로 창작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게 들리지만, 그것이 현실이었고 새로운 것이었으며 다른 종류의 이미지를 생산해 냈습니다. 이제 상황은 변하고 있고 우리 여성 예술가들은 그것의 일부로…

OLIVIER ZAHM – The game?
올리비에 잠 – 게임이요?

MIRIAM CAHN – Yes, not completely there yet, but let´s say it´s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미리암 칸 - 네,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시다.

OLIVIER ZAHM – Are you aware that your work represents something very current for recent transfeminist movements?
올리비에 잠 – 당신의 작업이 트랜스페미니스트 운동에서의 최신의 무언가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MIRIAM CAHN – Yes, I hope so! But what you´re saying remains an interpretation of my work. I hope that it´s not illustrative, that it´s still open to interpretation, like all art worthy of the name. That said, if you ask me if I´m a feminist, yes, I still am. When they asked Pipilotti Rist that question, she replied that it was a matter of honor. I think that´s a very good answer. It´s a matter of honor.
미리암 칸 – 네, 그러면 좋겠네요!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건 제 작품에 대한 해석으로 남아 있어요. 저는 그것이 어떤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제가 페미니스트인지 묻는다면, 네,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Pipilotti Rist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이는 명예의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그것은 명예의 문제입니다.

OLIVIER ZAHM – Your work reflects the present, I´m sure of that, but how do you see the future? How do you think the world will evolve?
올리비에 잠 – 당신의 작업은 현재를 반영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진화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MIRIAM CAHN – I´m 72 years old, so how do I picture the future? Personally, the future doesn´t really interest me because I don´t even know myself what I´m going to do tomorrow. I don´t know if tomorrow I´ll make an animal, a drawing, or a city. We´ll see tomorrow.
MIRIAM CAHN – 제가 72세인데 미래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미래는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내일 제가 무엇을 할지 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제가 동물을 만들지, 그림을 그릴지, 도시를 만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되면 알게 되겠죠.

OLIVIER ZAHM – Seventy-two, but with a punk spirit of revolt and rebellion.
올리비에 잠 – 당신은 72세지만 반항과 반란의 펑크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MIRIAM CAHN – You can´t not be in revolt mode if you´re an artist. It may be old school to think that, but it´s right.
미리암 칸-당신이 예술가라면 반란 모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아주 진부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맞는 말이긴 해요.

END
끝.